

## 광주 아셈 문화장관회의의 오늘 개막

〈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

문화전당서 24일까지...아시아·유럽 43개국 200명 참석

정부, '아셈 창조산업 청년 리더십 네트워크' 광주에 구축

윤장현 시장, 광주 문화비전 제시

대한민국에서 처음 열리는 제7회 아셈(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 문화장관회의가 22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개막한다. **〈관련기사 2면〉**

아셈 문화장관회의는 오는 24일까지 진행되며, 아시아와 유럽 43개국 문화장관 등 대표단 200여 명이 참석한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11월 문화전당 개관 후 치러지는 가장 큰 이벤트다.

참가국 대표들은 본회의와 세션별 회의를 열고 '문화와 창조경제'란 대주제를 축으로 '첨단기술과 창조산업의 미래', '전통문화유산과 창조경제', '창조산업과 국가간 협력' 등 분과별 주제 발표와 토론을 벌인다.

참가국 문화 콘텐츠와 창조산업에 대한 국가별 정책도 공개된다. 한국은 문화창조 융합센터·벤처단지·아카데미와 K컬처밸리, K팝 이레나 공연장 등 6개 거점으로 이뤄진 문화창조융합벨트의 추진 및 운영 사례를 소개한다.

아셈회의는 광주에 문화자산을 남기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우리나라는 문화콘텐츠 산업의 동반 발전을 위해 '아셈 창조산업 청년 리더십 네트워크' 구축을 제안할 예정이다.

아셈 회원국이 각국의 미래 문화콘텐츠 산업을 이끌어갈 청년들을 추천하고, 이

들 청년이 서로 협업해 콘텐츠의 기획과 개발, 사업화를 추진하도록 유기적으로 지원하자는 게 이 네트워크의 설립 취지다. 네트워크 조직은 광주에 둘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행사 마지막 날인 24일 본회의에서 의장 자격으로 의장성명을 발표한다. 성명에는 세션별 회의의 결과와 성과를 함께 회원국 간 '문화와 창조경제'의 긴밀한 협력을 당부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또 2018년 열리는 제8차 아셈 문화장관회의의 개최국도 발표된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이번 행사 세션별 워크숍에서 '첨단기술과 창조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광주의 문화지력과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행사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를 알리는 계기로 삼기 위해 23일 무등산 자락에 있는 전통문화관에서 윤 시장이 주재하는 만찬을 마련했다. 광주를 대표하는 사찰인 증심사에서 음식을 준비한다. 각국 대표들에게 광주문화를 소개하기 위해 전통문화시설을 둘러볼 수 있도록 투어코스도 짰다.

아셈 문화장관회의는 2003년부터 2014년까지 모두 6차례 열렸다. 올해로 창설 20주년을 맞은 아셈은 아시아·유럽 51개국과 유럽연합·아세안이 회원으로 등록돼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문화전당 손님맞이 꽃단장 제7차 아셈 문화장관회의의 개최를 하루 앞둔 21일, 행사장인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조성된 정원에서 관람객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오는 24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행사에는 아시아와 유럽 43개국 대표단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지 시나리오를 만들어 분석한 결과, 모든 시나리오에서 김해공항 확장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시나리오A는 접근 가능성 등 전략적인 요소에 가중치를 뒀고, 시나리오B는 소음·환경보호 등 생태적인 요소에 가중치를 뒀다. 시나리오C는 프로젝트 완료와 실현 가능성에 큰 가중치를 적용했다. **／연합뉴스**

민선 6기 반환점...광주시·전남도 성과와 과제

광주, 3대 미래 먹거리산업 기틀 마련

전남, 일자리 창출 1위 '변화의 바람'

민감한 현안 '상생' 미흡

윤장현 광주시정과 이낙연 전남지사가 민선 6기 반환기를 마쳤다. **〈관련기사 3면〉**

윤 시장의 민선 6기 전반기는 자동차·에너지·문화콘텐츠 등 미래먹거리 3대 산업 조성의 기틀 마련과 청년 일자리 창출 마련에 역점을 뒀다는 평가가 대체적이다. 여기에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생활임금제, 특·광역시 최초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보조 등은 첫 시민 시장으로 불리는 윤장현 시장의 '광주표 정책'으로 꼽힌다.

전국 최초로 청년정책 전담부서, 청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청년정책 추진과 지난해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했던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위기에 도 불구하고 하계 U대회 성공 개최도 호평을 받았다.

지역 역량 확대를 위한 다른 지역과의 상생협력도 민선 6기 전반기 시장의 큰 성과다. 이웃 전남과의 상생을 통해 분산됐던 남도의 역량을 다시 결집시키고, 영남의 중심 도시인 대구와의 '달빛동맹'을 통해 국비확보와 미래차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소통과 참여의 시민자치 실현도 눈에 띄는 행적으로 꼽힌다. 각종 정책 결정에 시민참여의 폭을 넓혔고, 국비확보 허수 제외와 도시철도 2호선 관련 재정 상황 공개를 통한 '민낯 행정' 등이 이례적이다.

하지만, 산하기관장 인사문제, 정무라인 인선, 정책자문관 월권 논란 등은 전반기 내내 윤 시장의 발목을 잡고 시장 동력을 떨어뜨렸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자동차 100만대 조성, 세계수영대회 준비, 상무소각장 활용문제,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의 난제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어떻게 풀어갈지 윤장현 시장의 후반기 시장 운영이 주목된다.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추구한 이낙연 전남지사는 농어업 중심의 산업구조 속에서 정부 일자리 평가에서 대상을 받는 등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허덕이고 있는 전남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다. 빛가람혁신도시의 성공적인 정착을 이끌고 한국전력, 광주시와 함께 에너지밸리 사업을 궤도에 올려놓았으며, 숲과 섬이라는 고유자원과 남도문예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기도 했다.

'상생'을 지역미래 비전으로 제시하면서, 함께 호남을 구성하고 있는 광주·전북과의 경쟁구도를 과감히 버리기도 했다. 산업 부문에서는 화학·철강·조선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 우려 속에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 고광강간 소재 가공 생태계 조성, 사업투입산업 지원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했다. 미래전략산업으로 에너지신산업과 드론 사업을 내걸고, 한국전력과 에너지밸리센터를 나주 혁신산업단지 내에 조성하도록 했으며, 고흥을 중심으로 한 무인기(드론)분야 육성 종합계획도 수립중이다.

그러나 일부 분야에서는 여전히 미흡하다. 광주, 전남과의 상생을 내걸면서 두 도안공학과 광주공화국의 통합, 에너지밸리센터 부지 선정 등 민감한 현안에서 쉽게 '민낯'이 드러났다. 취약한 산업 기반 속에 지역 제조업 성장을 이끌 동력이 부족하고, 일부 성과는 내고 있지만 고령화, 인구 감소, 노동 간 삶의 질 격차 등 근본 문제 해결은 요원하다는 평가다. 이 지사의 리더십도 후반기에는 변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과제를 지나치게 설정하기보다는 전남도의 예산, 조직 등을 감안해 해결 가능한 사안을 선별하고 이에 집중해 성과를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가덕도·밀양 아닌 김해공항 확장

### 영남권 신공항 10년 돌아 '백지화'

영남권 신공항 건설이 또다시 무산됐다. 대신 기존의 김해공항을 대폭 확장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관련기사 4면〉**

영남권 신공항에 대한 사전타당성 연구 용역을 벌여온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과 국토교통부는 2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영남권 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 최종보고회'를 열어 현재의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방안이 최적의 대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장 마리 슈발리에 ADP 수석 엔지니어

는 "기존에 나와 있던 옵션 2개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제로'에서 새로 시작하는 단계를 밟았다"며 "여러 단계 검증을 거쳐 ▲부산 가덕도 ▲경남 밀양 ▲김해공항 확장 등 3개 후보지로 최종 압축해 김해공항 확장이라는 결과를 도출했다"고 말했다.

ADP는 평가 기준 목록으로 ▲운영상 고려사항 ▲전략적인 고려사항 ▲사회경제학적인 고려사항 등을 정했으며, 각각의 요소에 대한 가중치 적용에 따라 3가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생존수영·운동장 우레탄 어찌나▶6면

이제는 문화시민 대구 오페라하우스 ▶18면

KIA 대수비 전문 고영우의 반전 ▶20면



세상의 모든 빛을 압도하는  
눈부신 자신감  
헤라 UV 미스트 쿠션

언제 어디서나 찬란한 빛을 보여주세요  
새로운 울트라 미립 분산 기술이  
한 번의 터치로 피부를 밀착시켜  
들뜸없이 완벽하게, 더 촉촉하고 섬세하게-  
건강한 윤기분홍 피부를 선사합니다

HERA

●유행병확이나 아노레 카운셀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고객상담: 080-023-5454(수신자 요금부담) www.hera.co.kr